

국어 산책

—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
김정대

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나는 문법론을 전공했고, 지금은 방언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대학 시절 내 첫 전공은 경영학이었다. 경제 호황기였던 1970년대 전반기 학번인 나는 잘나가는 경영학을 전공하여 큰돈을 벌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러던 것이 교양 국어 과목을 가르치던 어느 선생님의 꺾(?)에 빠져 국어국문학 쪽으로 전공을 옮기게 되었다.

나를 ‘전과자(轉科者)’로 만든 분은 잊을 수 없는 스승, 김영태(金永泰) 선생님이시다. 교양 국어 시간에 선생님은 소설 창작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 경영학의 ‘경’자도 모르고 경영학과에 입학했던 나는 점점 경영학에 흥미를 잃어 가던 중이었다. 따라서 나를 구원해 줄 유일한 대안은 소설을 써서 성공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 주위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전과의 길을 택한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전과 뒤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된 첫 과목은 기대한 ‘소설 창작론’이 아니라 예상도 하지 못한 ‘언어학 개론’이었기 때문이다.

놀라운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소설 창작과는 전혀 다른,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공시론과 통시론, 구조와 체계’ 등 언어학 관련 개념들이 내 머릿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새겨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 운명

이라고 할 수밖에. 소설 창작에 대한 미련을 간직한 채,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의 마력에 빨려 들고 있었다. 통사론 관련 논문 30여편을 발표했을 무렵, 내 나이도 어느덧 50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휴식의 필요성을 느낀 나는 학교에 연구년 신청을 했고, 2002학년도 1년을 미국에서 보내게 되었다. 이 시기에 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글의 소중함, 전율로 다가오다

내가 첫발을 내디딘 언어학 이론은 촘스키의 변형 문법이었다. 당시 는 이 이론을 모르면 언어학자로 취급도 받지 못하던 때였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촘스키 언어학은 이론 모형의 변화가 너무나 무쌍한 것이었다. 초기 이론, 표준 이론, 확대 표준 이론, 지배와 결속 이론, 장벽 이론, 최소주의 이론 등등은 ‘시골’에서 공부한 나에게 영원히 따라갈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이었다. 겨우 어떤 이론에 턱걸이하면 어느새 새 모형이 나와 저만치 앞서가곤 하였다. 그래서 나는 모진 마음을 먹고 ‘언어학의 본고장’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정식으로 최신 촘스키 이론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나의 욕망은 미국 도착 한 달이 안 돼 산산이 깨져 버렸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내가 머물던 포틀랜드 주립 대학의 어느 여교수가 내게 물었다. 그는 한국 사람으로 촘스키 밑에서 학위를 받은 정통 촘스키 진영의 한 사람이었다. “김 선생님은 뭐 하러 미국에 오셨어요?” “최신 촘스키 언어 이론 공부를 좀 하려고요.” 그는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서

츨스키가 사기를 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츨스키를 배우러 와요?” 칭천 벽력과 같은 소리였다. 그 한마디에 나는 내 당찬(?) 목표를 접어야 했다. 첫 연구 주제가 사라지고 나니 이제 무엇을 연구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때 내가 발견한 것이 그 대학 도서관에 ‘숨어 있던’, 외국 학자들이 한글을 평가한 솔한 자료들이었다.

나는 전율을 느꼈다. 외국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한글을 평가해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기문 선생님이 쓰신 19세기 외국 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연구는 이미 보아 온 터였고, 1985년 샘슨(Sampson) 교수가 한글을 세계 문자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의 문자인 ‘자질 문자’라고 평가한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대학 소장 자료는 내게 관련된 지식이 너무 얕음을 조용히 나무라고 있었다. 자료를 보면서 나는 외국, 특히 서구 학자들이 한글을 평가한 것은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182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글(언문)을 평가한 서구 학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한글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 왔다. 하나는 한글이 세계 문자 역사상 매우 우수한 문자라는 칭찬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한글도 어느 문자를 모방한 결과일 것이라는 선입견이었다. 1950년대 중반까지 이런 관점이 이어졌는데, 나는 이 시기를 제1기라고 불렀다. 제2기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로, 이때에 이르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로 평가되고 교재나 권위 있는 논문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다. 국보 《훈민정음》이 발견되어 모방설 등 불필요한 오해가 사라짐으로써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된 것이었다. 라이샤워·페어뱅크(Reischauer & Fairbank) 교수, 포스(Vos)와 맥콜리(McCawley) 교수, 그리고 레드야드(Ledyard) 교수가 이 시기 한글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학자들이었음은 한국에도 알려져

있었다. 그렇지만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저술 속에 한글을 재미있게 소개해 놓았다는 것은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제3기는 샘슨 교수가 자질 문자라는 발언을 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로 잡았다. 이 시기에는 자질 문자론 찬성론자뿐만 아니라 반대론자들도 있었는데, 이 사실도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대학 도서관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는 ‘파월 북스’나 ‘아마존’을 통해서 사들였다. 보유 책자 100만 권을 자랑하는 ‘파월 북스’는 지상에 들어선 미국의 최대 서점으로 평가된 곳이었고, ‘아마존’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 인터넷 서점이었다. 이 서점들에서 새로운 책을 구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2003년 귀국한 뒤 나는 국어학회에서 이 논제로 발표를 했고, 발표한 원고를 가다듬어 《국어학》에 투고하여 게재하였다. 당시 내 발표를 들으시던 어느 선생님의 말씀도 잊을 수 없다. “나는 지금까지 문자론 관련 자료를 내가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김 선생 발표를 들어 보니 그게 아니구먼.”

방언의 조사·연구에 매달리다

이론 공부를 하러 갔다가 뜻밖에도 ‘한글’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나의 연구년 시절. 이를 통해 나는 이론 지향적인 논문을 발표하곤 했던 나의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때마침 국립국어원(당시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남북한이 함께하는 새로운 ‘지역어 조사 사업’을 개시할 것이라며, 거기에 경상남도를 담당

해 달라고 내게 요청했던 것이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론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것’을 찾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연구년 시절에 온몸으로 느낀 덕분이었다. 국어학의 위치에서 볼 때, 우리 것의 범주에 드는 것은 문헌 자료와 방언이 대표적이었다. 그 가운데 내가 택한 것은 방언 쪽이었다.

2003년 1년이 지역어 사업을 준비하고 검토하는 기간이었다면, 2004년부터 2013년 10년 동안은 실질적으로 지역어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이었다. 이 10년 동안을 나는 현장을 누비고 전사(轉寫)와 씨름하면서 보냈으니 나의 50대는 방언 사업과 함께했던 셈이다. ‘지역어조사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이 된 나는 방언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 이전에도 간간이 방언 관련 논문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특별히 방언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논문을 쓸 만큼의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나 스스로 경남 방언 화자라는 점 덕분이었다.

내가 방언에 관심을 갖고 많은 자료를 축적해 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두 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분은 앞서 소개한 김영태 선생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이제 고인이 되신 내 어머니이시다. 선생님은 이른 시기부터 방언학의 필요성을 알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방언 자료를 수집하고 방언학을 일궈 낸 학자의 한 분이시다. 내가 전과자가 되면서까지 선생님 밑으로 들어간 것에서부터, 방언에 대한 관심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할 것이다. 다만, 젊은 시절에는 ‘이론 공부’의 매력을 물리칠 수 없어 춤스키 타령을 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살아 있는 경남 방언 사전 그 자체이셨다. 어머니를 통해 많은 자료를 정리해 둘 수 있었던 것은, 돌이켜 생각하니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2007년에 국립국어원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로, 나의 첫 방언 저술인 《경남

창원 지역의 언어와 생활》이 나왔다. 그때 서문의 끝에 나는 이렇게 적어 두 분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했다. “이 책을 필자의 두 분 ‘방언 스승님’께 바친다.”

나는 지금 경상남도의 후원으로 《경남 방언 사전》 편찬 작업에 여념이 없다. 몇 십 년 전부터 적어 두었던 자료를 하나하나 꺼내 보면서 집필을 하는 요즘의 내 모습이야말로 나의 참모습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방언을 언제 접하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새 방언을 듣는 순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종이의 종류와 모습도 천차만별이었다. 어머님 살아 계실 때, 손에 잡히는 종이 종류라는 종류는 다 ‘방언 자료 카드’가 되었으니 말이다. 면적이 넓은 흰 종이는 거의 찾을 수 없고 신문지 조각, 아이들 색종이, 편지 봉투, 수첩 내용 종이, 우편엽서, 심지어는 영수증까지 방언을 ‘보존하는 소중한 카드’로 활용되었다.

방언, 이렇게 소중한 존재일 줄이야

힘들여 가며 방언 사전을 편찬하는 까닭을 묻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 물음에는 한국에는 서울말 중심의 ‘표준어’가 있고 이것으로 의사소통을 하면 오히려 ‘통일’된 언어생활을 해서 좋을 터인데,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불만스러운 정서도 다분히 깔려 있다. 방언의 필요성은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을 위해 내가 준비해 둔 질문 하나를 먼저 던지기로 한다. “세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 시대 가장 힘 있는 언어로 인식되는 영어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언어는 모두 없애 버린다고 하면, 당신은 과연 여기에 찬성할 것인가?”

가?” 한때 이상한 주장을 했던, 어느 정신 나간 소설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한국 사람 모두는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답할 것이다.

영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세계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지, 그 나라 사람이 되기 위한 데 있지는 않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되, 세계인들과 만났을 때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왜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한국어가 우리의 모국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모국어만큼 곡진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사실 때문에 한 나라의 언어는 곧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대변하는 존재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다.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모국어 외에 당대를 대표하는 세계어(영어) 하나 정도는 배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두 개(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이중 언어 사용(bilingualism)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이나 논의는 우리나라 안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아무리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각 지역의 말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니 그 차이를 우리는 방언의 차이라고 한다. 이런 방언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일된 의사소통의 필요성에 의해 등장한 것이 바로 ‘표준어’이다. 따라서 표준어에 대한 이해와 익히기는 필수이다. 그러나 아무리 표준어가 필요하다고 해도 각 지역의 말, 즉 방언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아니, 가장 소중한 것은 표준어 또는 공통어의 뿌리가 되는 방언을 잘 지키는 일이다. 이 말은 영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국어를 잘 보존하는 일이라는 점과 바로 통한 것이다. 이제, 방언이 소중한 까닭을 정리해 보자.

방언은 지역민들의 정서를 이어 주는 매개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의의를 지닌다. 낯선 외국에서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기부터 하듯이, 우리나라 안의 낯선 고장에서 같은 고향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역시 반가움이 앞선다. 텔레비전 등 매체에서도 내 고향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시선을 집중하게 되는 것도 같은 현상이다. 이것은 언어가 같은 겨레, 같은 고장 사람임을 확인해 주는 매개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명절과 같은 날, 고향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고향말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더 정감이 가기 마련이다. 어쭙잖은 서울말을 썼다가는 대화 분위기를 망쳐 버리는 것은 물론, 정다운 사람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까지 생기게 됨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은가? 다음 예를 보자.

부산에서 서울로 ‘유학’ 온 한 대학생이 오랜만에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여고 동창의 전화를 받는다. 그런데 부산말로 얘기를 걸어오는 그 친구에게 무엇에 홀렸는지 서울말로 대답하기 시작한다. 도중에 갑자기 말투를 바꾸기도 쉽지 않아 부산말과 서울말이 교차하는 둘 사이의 대화엔 어색한 기류가 흐른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문득 그 친구에게 어설픈 서울 티를 낸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후회가 밀려온다. “어휴, 내가 미쳤지, 미쳤어!”

- 정진웅(2004), 서울과 지방: 그 중심 지향의 문화를 넘어서, 《당대비평》 26, 생각의나무, 53쪽.

방언이 존재해야 할 둘째 중요성은 방언은 한국어 어휘를 다양하게 하고 폭넓게 하는 데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서울말 중심의 표준어만으로는 우리말 모든 영역의 표현, 즉 농업·어업·광업 용어 등을 포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말의 맛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다.

일찍이 스칸디나비아에서는 토속적인 정감이 있는 방언을 표준어로 승격시켜 우리의 귀감이 되고 있고, 북한에서도 중요한 방언을 모두 문화어(우리의 표준어에 해당)로 승격시킨 것을 참조할 일이다.

따라서 표준어에는 없고 (경남) 방언에 존재하는 ‘꼼밥(달걀의 한 부분만 깨고 자위를 빼낸 다음 거기에 쌀과 물을 적당히 넣고 구워서 익혀 만든 밥), 늑삼(주위의 관심에 편승한 과장된 행위), 비긋이(비를 막는데 사용되는 물건. 비막이), 모름(고비를 넘길 수 있는 힘이나 의욕), 셋날지다(셋바람이 불면서 구름이 끼고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다), 마치 좋다(알맞을 정도로 좋다)’ 등등을 표준어로 사정한다면 우리말은 훨씬 더 감칠맛 나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가 될 것이다.

셋째, 방언은 국어사 연구에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국어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 많은 학자들은 예외 없이 문헌 자료가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의 실정에서 볼 때, 방언의 연구가 국어사 연구를 더욱 생생하게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한 예를 제주도 방언에서 찾아보자. 15세기 중세 국어에는 ‘씩, 쫓, 쌀’ 등 ‘ㅅ’계 합용 병서로 표기된 예들이 많다. 이들은 오늘날 대부분 지역에서 각각 ‘떡, 똥, 딸’ 등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15세기 당시의 발음도 된소리였을 것이라는 게 학계의 중요한 한 주장이다. ‘ㅅ’계 합용 병서는 된소리 표기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아직도 노인들이 ‘떡, 똥, 딸’을 ‘시떡, 시똥, 시딸년’으로 발음하고 있어, ‘ㅅ’계 합용 병서도 애초에는 된소리 표기가 아니라 제 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어두 자음군의 표기였음을 알게 해 준다.

이 밖에도 방언이 필요한 까닭은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방언들을 모아 놓고 비교해 보면 그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그런 인식은 국어 정책 수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는 것도 방언이 존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

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방언은 필요한 존재이다. 문학 작품이나 영화·연극 등의 배경이 지방일 때 그 지역의 말을 쓰면 작품에 생동감을 더해 준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맺는 말: 한 우물 파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언 사전을 편찬하다 보면 방언의 ‘다양성’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방언이 한국어(표준어) 어휘를 다양하게 하고, 폭넓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점은 바로 다양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표준어 ‘잠자리’에 해당하는 경남 방언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잠시 보자.

- (1) ‘철기’계: 철기, 털기, 처리, 철비, 철뱅이
- (2) ‘잘래비’계: 잘래비, 짤래비, 잘라래비, 짤라래비, 찰래비, 찰랑개비
- (3) ‘곰도리’계: 곰도리, 곰부리
- (4) ‘잠자리’계: 잠자리, 잔자리, 잠자루, 남자리, 깡자리
- (5) ‘행오리’계: 행오리, 앵오리
- (6) 그 밖: 안진뱅이, 필랑개비

모두 22개의 어형이 소개되었지만, 자세히 조사해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어형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어형들 하나하나가 그 생성의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런 다양성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언어(말)를 인류 최대의 문화유산이라고 부르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언어(방언을 포함하여)가 어떤

한 언어로 통일되는 것을 ‘재앙’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머리가 꼬덕여진다. 많은 언어가 영어 하나로 통일된다거나 한국어의 다양한 변종인 방언이 표준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뜻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으려 노력하는 것이다.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여 어떻게 먹고사느냐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이다. 전과를 하면서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국어국문학을 찾아한 우물만을 봤기 때문에 내게는 조금도 후회라는 것이 없다. 한 분야를 꾸준히 들여다보고 노력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길’이 있음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덧붙여 인문학 출신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정부가 늘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도 빠뜨릴 수 없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우리말, 우리글, 방언을 아끼고 연구하는 길을 걸을 것이다.